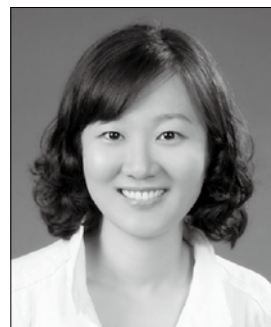


노인의 여가활동과 정책과제¹⁾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Leisure Activities of Older Koreans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TV시청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노인의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43.3%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각각 13.7%와 4.5%에 불과함. 노인의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며, 이 보다 적은 8.9%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함. 노인이 향후 참여를 원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61.6%)>종교활동(45.6%)>친목단체활동(40.1%)>소득창출활동 (29.1%) 순임.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 들어가며

고령화시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했지만, 은퇴연령의 변화는 적어 노년기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이러한 여가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²⁾.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노년기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한 이유는, 프로그램 수강 및 모임 등을 통한 여가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특정한 여가활동은 자원봉사, 재능나눔 등을 통해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거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시대에 의미가 크다. 활발한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증진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사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³⁾.

따라서 본고는 노인복지법⁴⁾의 근거 하에 최근

1) 본고는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2) 황남희(2014).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33, 2014. 3. 28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황남희(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pp.37-69.
4)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에 의해 2008년부터 매3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실시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사회단체 참여율,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실태 등을 살펴본 후,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실태와 향후 노후생활 희망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2011년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현황

1) 여가문화활동

전체 노인의 99.0%가 지난 1년 간 취미활동, 여행, TV시청, 영화관람 등의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였다. 주로 하는 여가문화활동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휴식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9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미오락활동 42.5%, 사회 및 기타활동 40.1%, 스포츠참여활동 10.2%, 문화예술참여활동 5.8%, 관광활동 4.0%, 스포츠관람활동 1.2%, 문화예술관람활동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문화활동의 8개 대분류에 의한 기준이며, 실제 조사는 여가문화활동의 중분류로 이루어졌다. 부연설명하면 여가문화활동의 대분류는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이다. 이 중 스포츠관람활동과 스포츠참여활동을 제외하고 특성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대분류 활동에 대해 중분류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중분류로 보다 세부적으로 여가문화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에서 TV시청 참여율이 82.4%로 가장 높고, 산책 17.8%, 음악감상 4.5%, 기타 27.0%이다. 취미오락활동에서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가 11.3%로 비율이 가장 높

그림 1.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참여율: 대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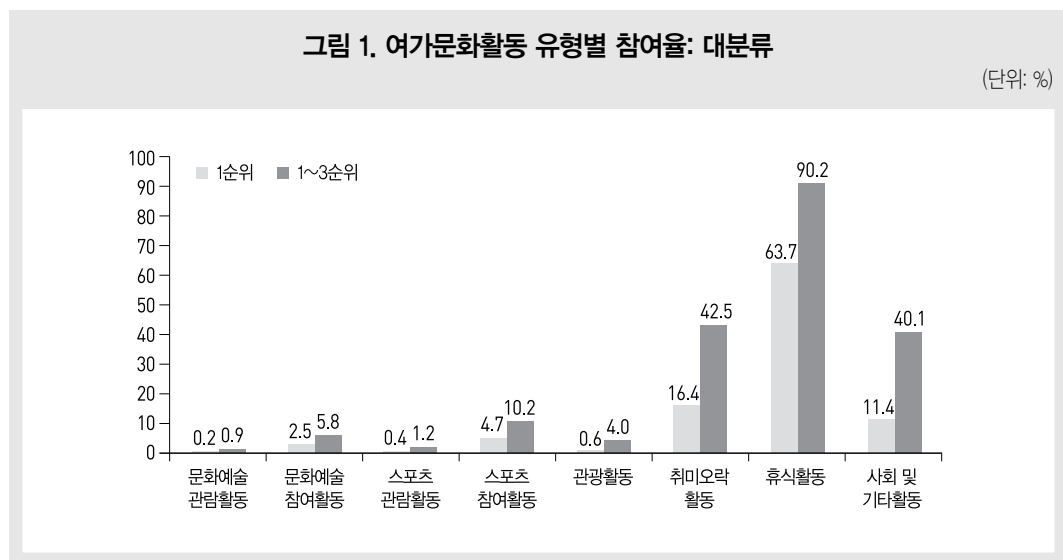


표 1.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참여율: 중분류

(단위: %)

구분		1순위	1-3순위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문화예술 관람활동	영화보기	0.1	0.7	0.8	0.3	0.8	0.5
	기타 ¹⁾	0.1	0.3	0.3	0.1	0.3	0.3
문화예술 참여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1.1	3.6	3.9	2.8	2.1	4.7
	미술활동: 그림, 서예 등	0.8	1.4	1.6	0.9	2.0	1.0
	춤·무용	0.2	0.5	0.6	0.1	0.2	0.7
	기타 ²⁾	0.3	0.7	0.8	0.6	1.2	0.4
스포츠관람활동		0.4	1.2	1.3	0.7	2.8	0.1
스포츠참여활동		4.7	10.2	11.0	7.6	12.3	8.7
관광활동	자동차 드라이브	0.3	0.7	0.7	0.7	1.2	0.3
	기타 ³⁾	0.4	3.3	2.8	4.9	4.0	2.8
취미 오락 활동	화투·고스톱 등	3.1	9.3	7.3	15.8	6.0	11.7
	등산	2.4	5.7	6.3	3.4	10.6	2.1
	화초·텃밭가꾸기	2.7	10.1	10.6	8.3	7.3	12.1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4.0	11.3	13.0	5.9	10.5	11.9
	낚시	0.4	1.0	1.0	0.9	2.2	0.1
	바둑·장기·윷놀이 등	1.5	4.8	4.3	6.2	9.0	1.7
	기타 ⁴⁾	2.3	7.9	8.4	6.1	9.3	6.9
휴식 활동	TV시청	54.3	82.4	80.7	88.0	79.5	84.5
	산책	4.6	17.8	20.0	10.7	20.1	16.2
	음악감상	0.8	4.5	5.1	2.5	3.8	5.1
	기타 ⁵⁾	4.1	27.0	27.1	26.8	28.7	25.8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3.6	8.3	9.1	5.8	4.7	11.0
	그 외 사회활동 ⁶⁾	7.1	31.8	29.3	39.9	27.1	35.1
	기타활동 ⁷⁾	0.7	2.6	2.3	3.4	2.8	2.4

주: 1)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임.
 2)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임.
 3) 관광활동의 기타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산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임.
 4) 취미오락활동의 기타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임.
 5) 휴식활동의 기타는 목욕·샤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임.
 6) 그 외 활동은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임.
 7) 기타활동은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고, 화초·텃밭가꾸기 10.1%, 화투·고스톱 등 9.3%, 등산 5.7%, 바둑·장기·윷놀이 등 4.8%, 낚시 1.0%, 기타 7.9% 이다. 사회 및 기타활동은 종교활동, 그 외 사회활동(봉사활동, 잡담·통화·문자, 단체활동 모임 등), 기타로 세분되며, 각각 8.3%, 31.8%, 2.6% 이다. 관광활동에는 자동차

드라이브와 기타(여행, 문화유적 및 자연명승방문, 소풍 등)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0.7%와 3.3%이다.

협의의 개념에서 여가문화활동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관람활동과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전체 노인의 6.7%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악기연주·노래교실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3.6%이며,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4%, 춤·무용 0.5%, 기타 0.7% 이다. 문화예술관람활동은 영화보기와 기타(전시회, 박물관, 연극, 음악연주회 등)로 구분되며 참여율이 각각 0.7%와 0.3%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문화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및 성별에 관계없이 휴식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 외 활동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며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표 1>로 대체하고자 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여가문화활동 분야에 큰 변화가 있어, 2011년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유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유형으로 변경하였고, 가장 주된활동 1순위를 3순위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하나지만 참여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3순위 주된활동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노인의 여행경험률은 29.7%로 확인되었다. 여행횟수는 1회가 5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회 23.2%, 3회 7.8%, 4회 이상

12.2% 등이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여행경험률 33.7%와 여행횟수 1회 비율 51.8%와 비교하면, 노인의 여행경험률과 여행횟수가 최근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⁵⁾.

여행경험률은 지역 및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읍·면부 노인이 33.6%로 동부 노인의 28.6%보다 5.0% pt 더 높고, 남자노인(32.0%)이 여자노인(28.1%)보다 약간 더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2) 사회단체활동

사회단체종류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친목단체 활동 43.3%, 동호회(클럽)활동 4.9%, 정치사회단체 0.5%로 친목단체를 제외한 단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친목단체 참여율은 37.4%, 동호회(클럽) 3.8%, 정치사회단체 0.7%였다.

사회단체활동별 참여율을 참여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더 활발하며, 남자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는 월 1회 비율이 가장 높다. 친목단체활동의 참여빈도는 월 1회 51.1%, 2주 1회는 18.7%, 월 1회 미만 16.0%, 주 1회 8.7%, 주 4회 이상 3.0%, 주 2~3회가 2.5% 등이다. 동호회(클럽)활동은 월 1회 43.8%, 2주 1

5) 2011년 여행횟수는 1회 51.8%, 2회 26.1%, 3회 8.6%, 4회 이상 13.5% 임.

표 2.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친목단체	동호회(클럽)	정치사회단체
전체		43.3	4.9	0.5
지역	동부	45.6	5.3	0.6
	읍·면부	35.8	3.7	0.4
성별	남자	51.7	8.4	0.9
	여자	37.2	2.4	0.2
연령 집단	65~69세	60.4	8.5	0.9
	70~74세	48.6	4.7	0.4
	75~79세	33.0	2.9	0.2
	80~84세	23.9	2.2	0.6
	85세 이상	10.7	0.8	0.0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12.9	0.6	0.0
	무학(글자해독)	25.7	0.7	0.1
	초등학교	42.5	2.0	0.3
	중학교	55.7	6.2	0.5
	고등학교	62.6	9.3	0.9
	전문대학 이상	67.8	22.2	2.6
가구 소득 수준	1분위	23.3	1.2	0.1
	2분위	35.7	2.3	0.5
	3분위	47.0	4.1	0.3
	4분위	51.5	6.5	0.6
	5분위	59.2	10.7	1.1

회 13.7%, 주 1회 13.3%, 월 1회 미만 11.5%, 주 4회 이상 8.9%, 주 2~3회 8.8% 등이다. 정치사회 단체는 월 1회가 56.6%로 가장 많고, 월 1회 미만 이 23.2%, 2주 1회 11.9%, 주4회 이상 8.3%이며, 주2~3회와 주 1회는 없다. 즉 노인의 사회단체활동에서 참여율은 친목단체활동이 43.3%로 가장 높지만, 참여빈도는 주1회 이상 기준으로 동호회(클럽)활동이 31.0%로 가장 높다⁶⁾.

3)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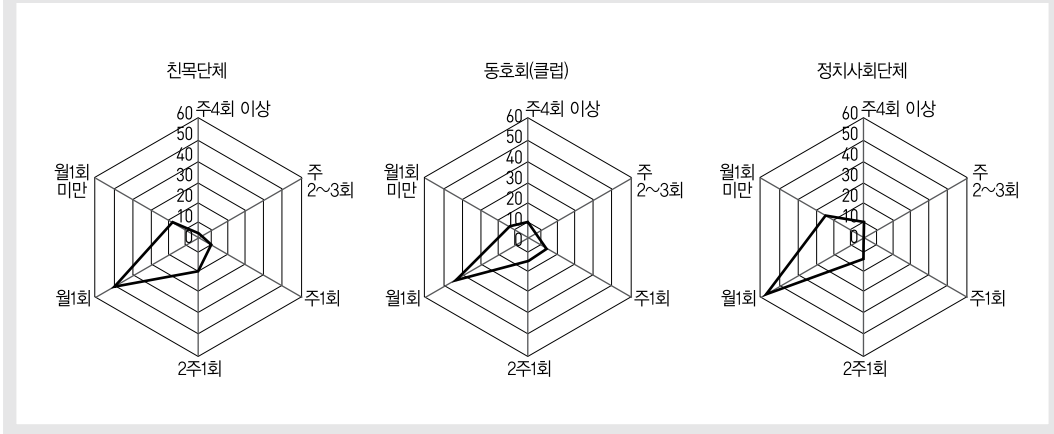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노인의 평생교육 실태⁷⁾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13.7%가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2011년은 현재 학습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조사했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6.7%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또한 지역 및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율은 차이가 있다. 동

6) 그림 2에서 세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더 많이 분포하면 참여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7) 초·중·고·대학 등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그림 2.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단위: %)



부지역 노인이 읍·면부지역 노인 보다 참여율이 더 높고(각각 14.4%, 11.4%), 여자노인의 참여율은 남자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각각 17.3%, 8.5%).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지난 1년간 평생교육참여율이 증가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빈도는 주 1~3회가 84.5%(주 2~3회 48.1%, 주 1회 36.4%)로 대부분이며, 주 4회 이상 11.1%, 2주 1회 1.8%, 월 1회 1.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가 24.3%와 노인복지관이 24.2%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공공 문화센터⁸⁾ 14.4%, 경로당 12.6%, 종교기관 9.3%, 사설 문화센터⁹⁾ 또는 사설학원 8.2%, 대한노인회 2.4%, 학교 2.2% 등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 노인이 14.5%, 나머지 81.0%는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2011년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3.9%, 과거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9.2%, 평생 참여한 적이 없는 노인은 86.9%였다. 동부지역 노인(4.7%)이 읍·면부 노인(3.9%)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더 높고, 여자노인(4.0%)보다 남자노인(5.2%)의 참여율이 더 높다. 평생교육참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는 월 1회가 25.6%로 가장 많고, 주 1회 22.6%, 월 1회 미만 16.7%,

8)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임.

9) 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임.

주 2~3회 13.5%, 2주 1회 11.4%, 주 4회 이상 10.2% 등의 분포를 보였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 연계기관을 살펴보면, 종교기관이 2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지자체 20.6%, 경로당 16.2%, 복지기관 15.4%, 민간단체 10.6%, 개인적으로 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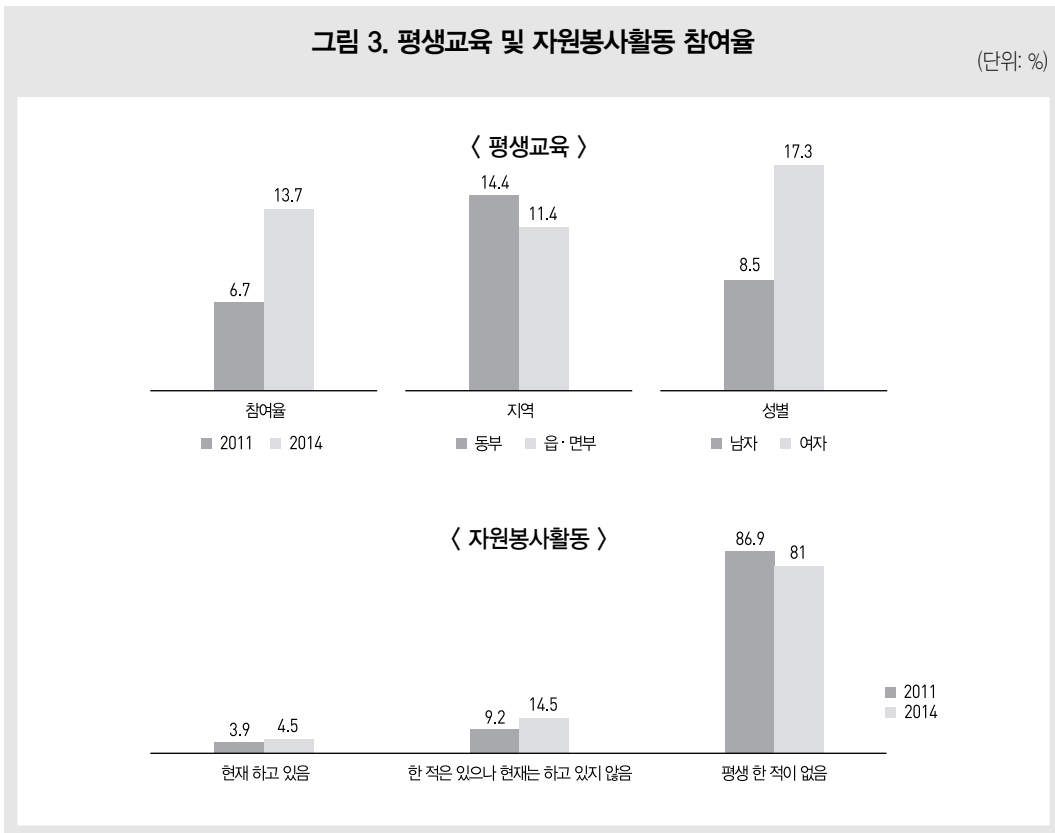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는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가 56.8%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분야(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18.2%, 교통질서분야(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8.9%, 보건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5.3%, 교육활동분야(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4.3%, 문화체육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3.6% 등의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단순 노력 봉사활동이 7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 14.9%, 직업 경력·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8.0%이다. 따라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3/4 이상이 지식이나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보다는 단순한 노력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그림 3.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수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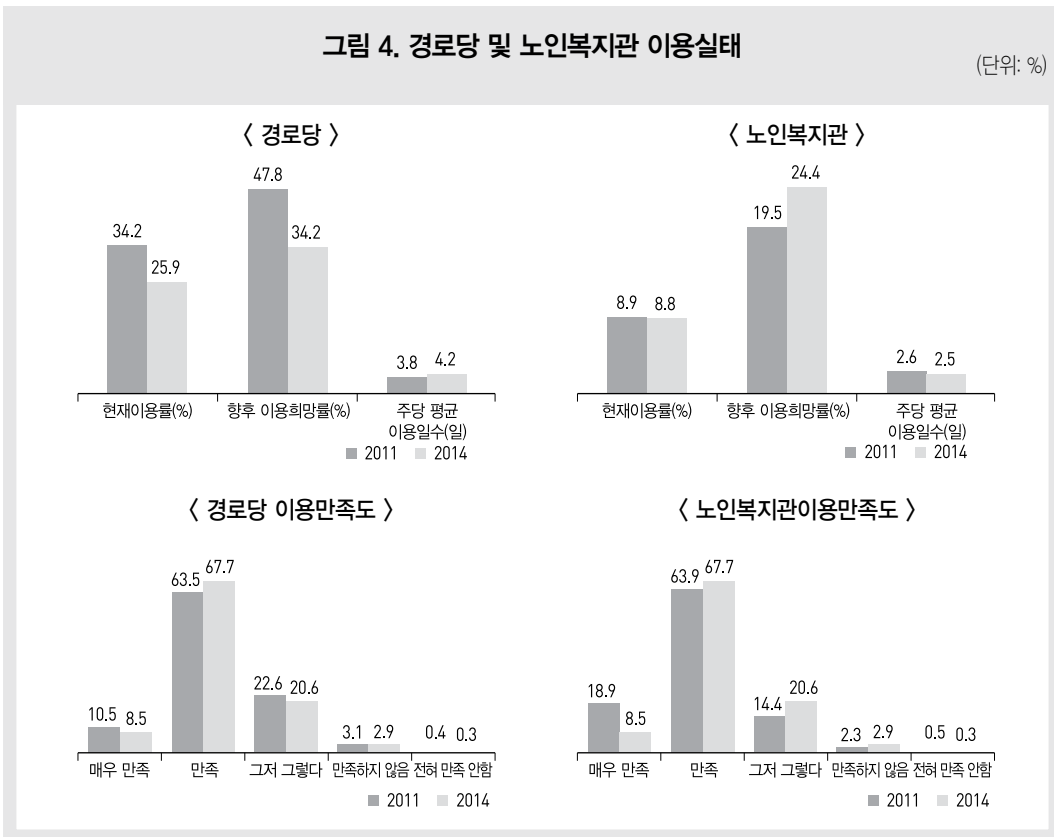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노인의 약 1/4인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며, 이 보다 적은 8.9%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2013년 기준 경로당은 전국 63,251개소로 가장 보편화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노인복지관은 319개소로 경로당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용을 희

망하는 노인은 경로당 34.2%, 노인복지관 19.5%로 현재 이용수준 보다 약 1.3~2.2배 높다. 즉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향후 이용하고 싶어하는 노인이 현재 이용자 규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2011년과 비교하면, 노인복지관의 현재 이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향후 이용희망률이 4.9% pt 증가한 반면, 경로당의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은 각각 8.3%pt와 13.6%pt 감소한 것이다. 주당 평균 이용일수는 경로당의 경우 4.2일(←3.8일)로 소폭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관은 2.5

그림 4.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일(←2.6일)로 동일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향후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미래의 노인들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로당이 단순히 장소제공에서 벗어나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경로당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만족)이 2011년 74.0%에서 2014년 76.2%, 노인복지관 또한 같은 기간 82.8%에서 84.4%로 소폭 증가 혹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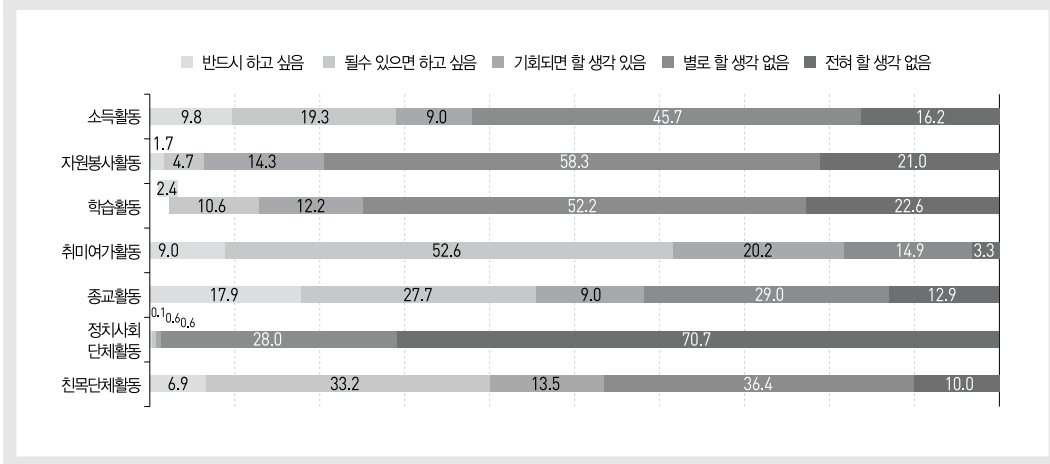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이유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경로당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친목도모 85.5%로 압도적이며, 식사서비스 이용 6.6%, 여가프로그램 이용 4.4%로 나타났다. 이는 경로당이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

문에 공간제공의 목적이 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3.2%이며, 그 다음 식사서비스 17.6%, 친목도모 14.9%, 일자리 사업 참여 4.8% 등이다. 경로당 이용이유의 대부분이 친목도모인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경로당 이용과 교육수준은 반비례 관계가 있지만, 노인복지관 이용과 교육수준은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예비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 감소,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 추세는 향후 지속 혹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간부문의 여가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예비노인의 여가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활동종류별 노후생활(여성) 희망 정도

(단위: %)



5) 향후 노후생활

앞으로 본인의 노후에 어떤 활동을 희망하는지 7가지 활동종류별로 파악한 결과, 활동종류별로 참여희망수준¹⁰⁾에 큰 차이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비율(반드시 하고 싶음 +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이 소득활동 29.1%, 자원봉사활동 6.4%, 학습활동 13.0%, 취미여가활동 61.6%, 종교활동 45.6%, 정치사회 단체활동 0.7%, 친목 단체활동 40.1%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따라서 노인이 선호하는 향후 노후생활은 취미여가활동>종교활동>친목단체활동>소득활동>학습활동 순이며, 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사는 매우 작다. 또한 소득활동 및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제외한 5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노인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과 향후 희망 노후생활 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3. 나가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적극적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확대로 고령인력 생산성 강화,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노인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는 사회 공헌과 자기 만족 추구를 통해 노후 삶을 보다 의미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여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TV시청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43.3%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각각 13.7%와 4.5%에 불과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이용률과 향후 희망률은 오히려 최근 3년간 8.3%pt(34.2%→25.9%)와 13.6%pt(47.8%→34.2%) 감소하였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정책 효과성 평가와 노인여가복지 욕구파악 등을 통해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노인에게 가장 친근한 TV매체 등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 등으로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이 향후 참여를 원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61.6%)>종교활동(45.6%)>친목단체활동(40.1%)>소득창출활동(29.1%) 등의 순이며, 학습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희망 참여율은 현재수준과 유사한 13.0%와 6.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노인의 경륜과 지혜가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여가 욕구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10)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 있음, 별로 할 생각 없음, 전혀 할 생각 없음의 5점척도로 응답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단체활동 참가율, 자원봉사참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 및 물리적인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은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은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등 사회적 공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

책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역할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비노인의 건강, 교육 및 소득수준이 현세대 노인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여가욕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공공영역의 인프라만으로는 노인의 새로운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노인 여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